

LOCAL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시장 품질 인증’ 명품 나주배 명성 이어간다

함평,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농업 미래 교류·소통의 장 마련

함평군은 최근 영광군 스포티움에서 열린 제18회 전남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함평군 후계농업경영인회 회원들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농업은 미래의 희망이다. 희망을 여는 전남 한농인’이란 주제로 (사)한농연전남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농연영광군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전남 22개 시·군에서 1만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이 참석했다.

대회는 개회식, 화합 행사, 농업 발전 토론회, 농업용 드론 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이번 대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회원과 교류하며 농업과 농촌의 미래 발전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함평군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용 드론 경진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며 미래 농업 선두 주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상의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의 정책과 혁신을 이끌 주요 인물들로 군에서도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해남 대흥사 심적암지

전남도 기념물 지정

해남군은 대흥사 심적암지가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심적암지는 일제강점기 해남과 완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황준성의 부대와 대흥사 승려들이 1909년 7월 일본군과의 맞서 싸웠던 항일의병지로, 이 전투에서 의병 24명과 승려 5명이 희생당하고 사찰은 전소됐다.

심적암 의병운동 이후 해남 지역민들의 사회의식,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1919년 3·1운동과 1935년대 전남운동협의회 결성 참여 등 여러 방면으로 독립운동이 지속됐다. 특히 불교계 무장투쟁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군은 2019년 발굴 조사와 사료 연구를 통해 건물지 3동과 우물지 1동, 문지 1곳을 확인하고 심적암지가 수형도랑에서 항일 의병 전적지로 변화한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남 심적암 항일의병 전적’이란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시, 지역 농가 대상 전문가 컨설팅 진행
윤병태 시장 “전세계 최고 맛·품질 인증”

나주시가 지역 특산품인 나주배 품질인증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 APC 2층에서 시장인증 품질 보증에 참여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우리 품종 속기 판정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윤석규 배연구센터 농업연구관과 서호진 순천대 교수가 참여한 현장 컨설팅이 농가 과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농가별 과실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조생종 배 품종의 적정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 품종 속기 판정 컨설팅은 과학적 검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명품 나주배 생산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조생종 배

품종의 수확 적기를 판정한다. 전문가로는 최요품 배연구센터 농업연구사, 민광현 나주배원협 박사, 최진호 농업인상담소 상담소장이 컨설팅으로 참여했다.

참여 농가는 각 과원에서 수확한 표본 과실(상단·중앙·하단 각 1과)의 당도, 과중, 크기, 경도, 요오드 반응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속기 판정단과 농가가 협의해 신화배는 지난달 26일, 창조배는 지난달 28일경 2차 속기 판정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시는 지난달 19일 나주배원협 대회 의실에서 신화품종 배 수출 농가 35명을 대상으로 속기 판정 컨설팅과 수확 후 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신화품종의 무게, 당도, 경



나주시는 최근 나주 APC 2층에서 시장인증 품질 보증에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품종 속기 판정 컨설팅을 개최했다.

도를 기준으로 속기 판정 컨설팅을 했으며 그 결과 평년보다 5~7일 정도 수확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맛으로 승부하는 나주배, 수출로 활로를 찾는 나주배’를 정책 기조로 삼고

품질보증제 확대와 수출 전략을 통해 내수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나주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속기 판정 컨설팅

은 소비자에게는 안심, 농가에는 희망을 주는 과정이다”며 “품질보증제를 통해 맛과 품질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나주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늦더위 기승...취약계층 폭염 대응 총력

수확철 맞아 영농·건설현장 등 집중관리 강화

고흥군이 막바지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장기화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읍·면과 합동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폭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8월 말~9월 초 본격적인 농축산물 수확기를 앞두고 폭염 노출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13명 중 9명이 영농작업 중 발생한 것

으로 집계됐다. 이에 군은 피해 최소화과 주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군은 70세 이상 농·축산업 종사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청과 읍·면 담당자가 합동으로 △폭염 대응 홍보·계도 △전화 안부 확인 △순찰 활동 △생수 나눔 등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펼치고 있다. 또 폭염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 영농작업 자제를 안내하고 무더위쉼

터 활용을 권장하는 한편, 건설현장과 야외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이장,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한 지역 사회 돌봄 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을 세밀히 살피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올해 폭염으로 이미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게 수확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최근 10만번째 방문객 김아로씨에게 전복 세트와 센터 초대권을 경품으로 전달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누적 치유객 10만명 달성
16개 프로그램 운영...웰니스 관광명소 각광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누적 방문객 10만명을 돌파했다.

1일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만번째 방문객 김아로씨에게 전복 세트와 센터 초대권을 경품으로 전달했다.

김씨는 친구와 함께 광주에서 센터를 방문했으며, SNS를 통해 체험 후기 영상을 보고 센터를 찾게 됐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시설로 해양기후와 해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웰니스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해조류 거품, 머드, 해수, 저주파, 스킨 등 치유 테라피의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에서 찾는 발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높

다.

지역민은 물론 가족 단위 여행객, 체험 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 치유객 10만명 달성 기념 환영 이벤트를 시작으로 10만보 맨발 걷기 챌린지, 해양치유 건강 릴레이, 10만 축하 포토존 SNS 인증 이벤트 등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우철 군수는 “치유객 10만명 달성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성과다”며 “국내 최조라는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양질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검색

나라장터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광주판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